

노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소득수준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최선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과 지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 정책에서 관계망 중심의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지리적 접근성이 사적네트워크와 공적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에 따라 노인의 참여 네트워크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유한 노인일수록 친목단체 참여를 선호하는 반면, 굳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 네트워크에의 참여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보접근성에 있어서는 핸드폰 활용정도보다 인터넷 활용 정도가 노인들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서 인터넷이 네트워크 참여에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IT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과 관련하여 공적네트워크와 사적네트워크가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노인복지관이 멀수록 복지관이나 자원봉사 등의 공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보다는 친구나 이웃, 친목단체에의 참여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소득별 사회적 관계망 맞춤 정책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서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고령사회, 사회적 관계망, 지리접근성, 정보접근성

* 본 연구는 최선미의 박사학위논문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자살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미래정부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정책, 사회자본, 지방자치 등이다 (sunmi2142@hanmail.net).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저성장(New Normal)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 노인세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빈곤과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으로 특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십여년간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에 따라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이 흐려져가고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노인의 우울, 노인자살, 노인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우울 감소와 주관적 건강 상태 등 노년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고 볼 때,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고령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노인의 복지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주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망과 노인의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자체가 하나의 관계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관계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 유형별로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 정책에서 관계망 중심의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노인들의 네트워크 특성은 그 유형별로도 성격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네트워크 자체로 다른 세대와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소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유형별 네트워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가진 청년세대나 장년세대와 달리 노인들의 네트워크는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인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종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노인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은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wling and Stafford, 2007). 그러나 꼭 경제적으로 부유한 경우에만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단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체적·물리적으로 취약해지는 노인세대의 경우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성'이 참여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은 지리적 접근성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성을 포함한다. 어떠한 여가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정보접근성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정보접근성 역시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노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실제 소득과 접근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유형별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하여 소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도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노인들의 네트워크 특성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을 중심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모든 사회관계적 접촉을 포함한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와의 상호교류'를 의미하며 Mitchell(1969)는 '개인 간의 연결적 특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정의하였다(Mitchell, 1969; Ell, 1984; 오인근 외, 2009 재인용). 네트워크와 비슷한 개념인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환경의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사회적 지원, 사회연결망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를 동일개념으로 보거나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망의 내용적 측면으로 보기도 한다(Wegener, 1991; Litwin and Shiovitz-Ezra, 2011).

사회적 지지를 협의의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으로 볼 경우 '개인이 인간관계로부터 얻는 유·무형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송용석, 2010). 즉,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자원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서 '개인이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과 상호작용을 통하

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정서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Haws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식, 비공식적 연결망'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은퇴, 질병 등으로 여러 면에서 취약해진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노인들을 중심으로 관계망 또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유형화한 연구들은 주로 Litwin의 연구에 기반하며 가족형, 친구형, 제한형, 다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Litwin, 2001; Litwin and Shiovitz-Ezra, 2006; Litwin, 2011; Fiori et al., 2006; Fiori et al. 2007). Fiori et al.(2006)은 Litwin(2001)의 유형화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의 가족형, 친구형, 다양형, 제한형의 유형화에서 제한형을 비친구형과 비가족적 제한형으로 구분하였다(Fiori et al., 2006; Fiori et al., 2007).

노년기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하여 강은나·이민홍(2014)은 가족, 친구, 종교 등의 연락 및 접촉빈도에 따라 혈연중심형, 고립형, 다관여형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혈연중심형은 친구나 종교참여는 거의 없고 가족 중심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다관여형은 가족, 친구, 종교 모두의 연락 및 접촉빈도가 높은 유형이며 고립형은 다관여형의 반대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강은나·이민홍, 2014). 임소영 외(2013)의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배우자중심형, 배우자비동거자녀 중심형, 동거자녀 중심형으로 구분하고 기타 친구, 이웃 등에 대하여는 제한형, 광범위형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천의영(2010)은 가족형, 폐쇄형, 확대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복자(2013)는 노인의 네트워크를 공적네트워크(지역참여, 봉사활동)와 사적네트워크(가족, 친지, 친구)로 구분하였다.

한편, 개인이 어느 하나의 네트워크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네트워크 유형을 조합하여 유형화한 시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Wenger(1991), Wenger and Tucker(2002)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과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의 네트워크 유형을 조합하여 '통합된 지지네트워크'와 '제한된 지지네트워크'로 유형화하였다. 통합된 지지네트워크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고립정도가 낮은 유형이라 볼 수 있는 반면, 제한된 지지네트워크는 통합된 지지네트워크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네트워크와 약한 강도의 네트워크 유형으로 볼 수 있다(Wenger, 1991).

'통합된 지지네트워크'는 다시 '지역통합 지지네트워크'와 '지역사회초점 지지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가족 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 모든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하며 후자는 동거가족보다 비동거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친구나 이웃등 지역사회와 접촉이 많은 네트워크 형태이다

(박미진, 2012). 한편, ‘제한된 지지네트워크’는 ‘자급자족적 독립형’과 ‘가족의존적’, ‘최소한의 지지네트워크’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급자족적 독립형’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참여활동이 거의 없고 가족보다 좁은 개념의 가구중심의 네트워크이며 ‘가족의존적’ 네트워크는 가족과는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나 친구나 이웃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미미한 형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지지네트워크’ 형태는 문자 그대로 최소한의 네트워크로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과의 사회적 접촉이 미미하고 고립된 유형을 의미한다(박미진, 2012).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네트워크 유형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고립된 노인군을 예측하여 정책수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네트워크 유형화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홍준형, 2009; 박미진, 2012).

〈표 1〉 Wenger and Tucker의 사회적 지지네트워크

통합된 지지 네트워크	지역통합 네트워크 (the locally integrated support network)	가족구성원, 친구, 이웃,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지역사회초점 네트워크 (the wider community focused support network)	함께 거주하거나 교류하는 가족구성원은 적으나, 친구와 이웃과의 광범위한 접촉이 있는 형태
제한된 지지 네트워크	자급자족적 독립형 지지네트워크 (the local self-contained support network)	지역사회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하나, 지역사회 활동이 거의 없고, 가구중심의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가족의존적 지지네트워크 (the local family dependent support network)	가족중심의 네트워크는 있지만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형태
	고립형 지지네트워크 (the private restricted support network)	가족이 없고, 친구나 사회적 접촉이 매우 적거나 미미한 경우

※ 출처: Wenger, G. C., (1991). Wenger and Tucker(2002), 박미진(2012) 재인용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삶의 질과 건강, 우울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노화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배우자나 지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실감이 큰 집단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관계망이 독립변수가 되어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실제 많은 실증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과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망의 수와 접촉빈도, 참여

정도, 도움정도가 많고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krause and Borawski, 1994; Magilvy, 1985; 박미진, 2012; 서병숙·이현, 1995; 홍순혜, 1984; 박순미, 2010; 권중돈·조주연, 2000; 이주일 외, 2006; 신창환, 2010). 기존 논의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가족과 지역으로 구분하거나 가족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화하였으나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유형화보다는 이복자(2013), 이복자·명승환(2010), 이복자·김용훈(2010)의 유형화에 따라 개인의 공적, 사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있어서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어떤 요인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즉,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인 효과가 밝혀졌다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속하는 요인들 및 이들 간의 실증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수준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하에서는 네트워크와 소득, 네트워크와 접근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소득수준과 사회적 연계망

빈곤과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빈곤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네트워크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의 흐름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빈곤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늘어나거나 (남은영·최유정, 2008) 역으로 빈곤할수록 지역공동체 의식이 낮아지는 동네효과가 나타나거나 사회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ttell, 2001; Kennedy et al., 1998; Moore & Diez Roux, 2006; Macintyre, Maciver, & Sooman, 1993; 광현근, 2008; 이현주 외, 2013; 박선희·박병현, 2012). Kennedy et al.(1998)은 빈곤과 사회자본, 범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경우 네트워크, 신뢰, 사회참여 모든 영역에서 매우 열악한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은 사적네트워크 보다는 공적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복지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이현주 외, 2013).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의 지방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자본 효과를 분석한 기영화

(2013)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아업 참여는 노인들의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및 건강증진 효과, 사회적 참여를 통한 신뢰, 관계망 증가 등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영화, 2013; 장유미, 2011).

반대로, 사회자본이 빈곤완화의 수단으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빈곤탈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자본이 소득의 크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다(Narayan, 2002; Narayan and Pritchett, 1997; Grootaert, C., 1999; Cleaver, F., 2005; Knack, S., 2002; 임경수·소진광, 2005; 홍경준, 2002; 이성호, 2008). Narayan and Pritchett(1997)은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가구의 사회적 자본이 가구 복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증명했으며, Grootaert, C(1999)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에서 사회자본이 가구의 빈곤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자본이 빈곤을 줄이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Knack, S(2002)는 사회자본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국가 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자본이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 et al.(1993) 역시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사이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연대의 정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네트워크의 해체는 빈곤 상황에 대한 빈곤층의 집단적 대응 수단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빈곤층의 대응전략으로서 공식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이성호, 2008). 사회적 자본이 빈곤 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소진광, 1999; 소진광, 2000; 이홍직, 2009)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빈곤과 네트워크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이나 국가 등 집단의 단위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며, 빈곤과 같은 경제적 수준이 사회자본이나 네트워크에 미치는 현상은 집단 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기 때문에 빈곤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내생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이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세대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청년 세대의 경우 '학교'에서, 중장년층의 경우 '직장 또는 일터'에서 자의가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물론,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관계 내에서 그룹이 형성될 수 있으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에서 은퇴하여 소속이 없는 노인세대의 경우 이러한 무조건적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없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딘가에 소속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가 아닌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에 추가적

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이 형성되기 위한 비용이 수반된다. 즉, 학교나 회사에 가기 위해 소정의 식사비용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 비용이 없다고 해서 학교나 회사를 안 가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나거나 친목단체에 참여하거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세대의 경우 누군가와와의 만남을 형성하거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비용이 만남을 성사하는 데에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로당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왕따'의 경우에도 주로 경제적 측면의 소득차이가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고, 친목단체를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비가 있으며,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의 '소득'은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아주 가까운 옆집이나 뒷집 같은 이웃의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아주 가까운'이라는 접근성의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되기 위한 비용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1: 노인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노인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노인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접근성과 사회적 연계망

접근성이란 주로 도시계획이나 교통지리, 입지, 정보기술,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먼저,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접근성이란 '이용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이용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김황배·김시곤, 2006). 주로 도시시설의 입지기준으로 활용되는 공간적 형평성(spatial equity)과 공간적 효율성(spatial efficiency)이 접근성에 의해 산정되는데 공간적 형평성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주요 도시시설 간의 최대통행거리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 데 이용되는 지표'이며, 공간적 효율성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도시공공시설간의 총 통행거리의 합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 데 이용되는 지표'이다(김황배·김시곤, 2006). 공공시설물 입지에서의 접근성(accessibility)은 주로 이동을 위한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손정렬·오수경, 2007; 마세인·김홍순, 2011). 교통학적 의미에서의 접근성은 '통행발생지역으로부터 특정지역이

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일반적으로 거리·통행 시간·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교통량이 많아짐(오충원 외, 2012)으로, 지역간 거리나 상대적 근접성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정일호 외, 2002). 한편, 접근성을 ‘장소의 접근성 (placeaccessibility)’과 ‘사람의 접근성 (individual accessibility)’으로 분류하기도 한다(Kwan et al., 2003; 김현미 2008 재인용). 장소의 접근성은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에 얼마나 가까운가 혹은 접근하기 쉬운가’로 다른 지역과의 거리 인접성이 주요인이며, 사람의 접근성이란 개인이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시설의 분포 등을 의미한다(Kwan and Weber, 2003).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주로 논의 되는 서비스 접근성은 Baker(2003)는 “서비스 접근성이란 적합한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한다(Baker, 2003: 3). 특히, 지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접근성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도나 대중교통 이용형태 및 다양한 지리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백화영·윤민석, 2007).

한편,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웹 접근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노인과 관련하여 인터넷과 핸드폰 기술의 발달이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을 강화시키고 고독을 완화할 수 있다(Wherton, et al., 2015). 노인에게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오락, 사회화, 교육 및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아존중감, 복지감 및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하고 사회성이 함양되며 학습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신용주, 2005). 김용순·최영훈(2007)에 따르면, 정보기술이 경제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나 노인의 복지 수요 전반을 해결하는데 모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gberg(2004)에 따르면 노인공학(gerontechnology)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보기술이 주는 효과에 대하여 1) 나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육체적·정신적 능력과 관련된 손실 예방, 2) 이미 발생한 능력 감퇴증세 상쇄, 3) 활동 촉진, 4) 노인의 돌봄(care)을 용이하게 함, 5) 노인에 대한 연구 증진 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IT 정보기술에의 접근성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웹 접근성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들의 정보 기술 접근성과 사회적 연계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접근성에 관한 이론을 종합하여 볼 때, 접근성은 개인이 어떠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1) <http://www.wah.or.kr/Accessibility/define.asp>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도로 지리적 거리나 접근 기회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비용보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성을 지리적 접근성과 정보접근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들의 접근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상태 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의료서비스접근성과 관련하여 의료시설까지의 거리가 길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Nemet and Bailey, 2000; Casey et al., 2001; Probst et al., 2007).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 측면에서 의료기관이 환자 입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할수록 치료의 질이나 방문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태의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rcury et al., 2005; Chan et al., 2006; McCarthy et al., 2007; Bello et al., 2012).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있어서 의료시설에의 접근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공공기관까지의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복지관 등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 즉 각종 연결망에의 접근성이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복지관 접근성과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이나 노인복지관까지의 접근성과 복지관 참여 빈도, 의료기관 방문빈도 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만 존재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즉,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치료 목적의 의료시설 방문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의료서비스 이용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Arcury et al., 2005; Hong et al., 2004; 이유진·김의준, 2015). 이형숙(2011)은 도시 노인들의 도보권 근린생활 시설의 이용현황과 인지된 근접성을 조사한 결과, 근린시설 중 공원 및 녹지, 노인회관, 의료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이용 빈도 및 근접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Litman (2010)은 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음을 지적하고 고령화, 의료비용의 상승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복지관 이용빈도 또는 프로그램 참여의사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Krout, 1991; 이동영·박정두, 2011; 백학영·윤민석, 2007). 권순정(2003)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건축계획에 있어서 노인의 물리적 신체기능 저하 및 정신기능 저하의 고려, 노인소외 및 사회성 증진,

거주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계획을 설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노인세대의 경우 접근성이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신체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 개인이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특히, 퇴행성 관절염 등의 무릎 관련 질병은 남녀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노인질환으로 알려져 있다.²⁾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만남'이 전제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누군가에게 가거나, 누군가 본인에게 오거나 하는 대면이 필요한데, 노인세대의 경우, 이러한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에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질병의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즉,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청년세대나 중장년 세대의 경우 '무릎'이 아파서 원거리를 못 가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반면, 노인 세대의 경우 '무릎'이 만남을 포기하게 하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것도 노화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노인세대의 경우 보행능력이든 운전능력이든 어떤 장소에 가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동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성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선미·홍준형, 2017). 이상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2: 노인들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노인복지관까지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노인복지관까지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중교통시설까지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대중교통시설까지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의 정보접근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보격차의 결정요인, 정보격차 해소방안

2) 미국의 국민건강 통계센터(NCHS, 1987)에 따르면 노인에게서 가장 발병율이 높은 만성질환은 난청, 고혈압, 관절염으로 나타났다.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1238629&thread=10r02>, 검색일: 2017. 11.06

등의 정보격차를 분석하는 연구(김천석, 2008; 김은정, 2007)와 정보접근성과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로 대분된다(이복자·명승환, 2010; 신용주·구민정, 2010).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와 정보접근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양자의 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활용이나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공적·사적 네트워크 형성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ellman, 2001; Baym, 1997; Sproull&Kiesler, 1991; Rheingold, 2000; 이복자·명승환, 2010; 이복자·김용훈, 2010). Wellman(2001)에 따르면 인터넷 활용정도가 강할수록 자원봉사조직이나 정치에의 참여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터넷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공통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서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Baym, 1997; Sproull & Kiesler, 1991; Wellman, 2001) 온라인커뮤니티가 개방되고 민주적인 담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Sproull & Kiesler, 1991), 또한,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티를 형성 및 발전시킬 수 있다(Müller, 1999; Rheingold, 2000).

또한,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IT교육이나 스마트폰 정보 활용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월석 외, 2013; 신용주, 2005; 신용주·구민정, 2010). 신용주·구민정(2010)은 노인들은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외로움의 극복을 목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정보화교육을 받은 노인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정보화교육이 갖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정보화 인식에 따라서 고령자의 정보활용 행태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정보화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보 활용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명승환·이복자, 2010).

이복자·김용우(2010)에 따르면, 노인의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신뢰성이 증가하였으며, 인터넷활용의 효과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초졸 이하일 때 네트워크와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의 활용정도나 정보화교육 참여정도는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복자·명승환, 2011), 즉,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일수록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llison et al., 2015).

노인의 정보접근성 논의는 전술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만남’의 종류 가운데 ‘간접적인 만남’ 그 자체이거나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가상커뮤니티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세대에 비교하여 볼 경우 노인세대의 인터넷 활용능력이 낮은 편이지만 인터넷이 점차 보편화되고 인터넷 활용자가 노인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관계 형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지리적 접근성 외에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어떤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영향을 미친다면 실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의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3: 정보 접근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인터넷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인터넷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핸드폰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핸드폰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선행연구의 함의 및 이론적 논의 종합

노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와 삶의 질, 건강, 우울 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이들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왔으며, 상대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네트워크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도 부분적인 관계만을 규명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고 ‘노인’의 네트워크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같은 네트워크라도 자녀와의 네트워크와 친구와의 네트워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세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세대와 달리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기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은 네트워크 형성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네트워크, 소득이나 빈곤 등의 경제수준은 많은 연구에서 논의가 되어 왔으나, ‘접근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설명하고자 했던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노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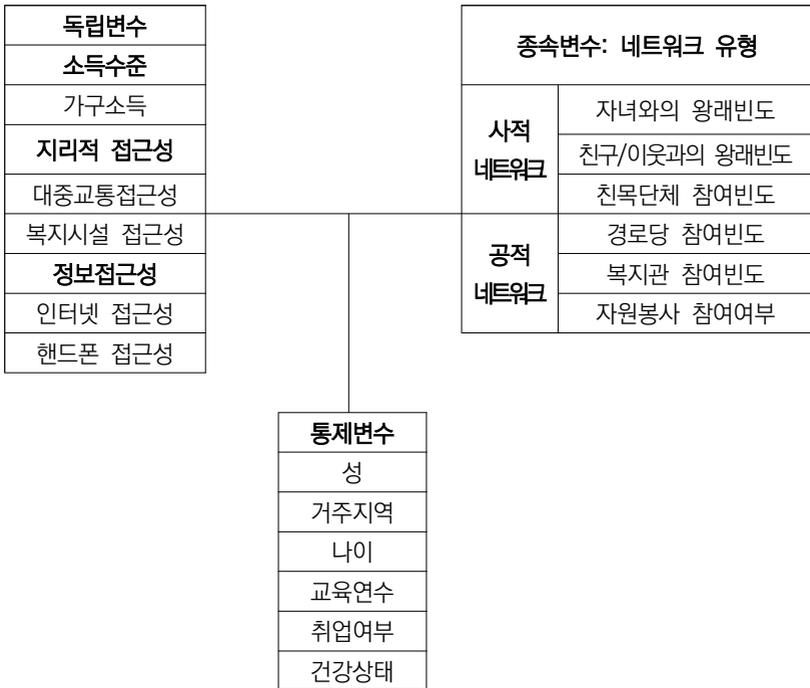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어떤 영향요인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STATA 13.1 버전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수준, 지리적 접근성, 정보접근성 등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부록 참조) T-검정 등의 방법론을 통하여 분

석을 할 수도 있으나 단순한 평균비교는 그 요인 외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고 편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및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으로 자녀와의 왕래빈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친목단체 참여빈도, 경로당 참여빈도, 복지관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여부이다. 종속변수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은 이복자·명승환(2010), 이복자·김용훈(2010)에 따라 사적네트워크와 공적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이복자(2013)는 노인의 네트워크를 공적네트워크(지역참여, 봉사활동)와 사적네트워크(가족, 친지, 친구)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적네트워크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지역참여로 보고 경로당 네트워크, 복지관 네트워크, 자원봉사 네트워크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사적네트워크는 자녀 및 친구, 친목단체 참여빈도로 세분화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 따라 세 가지 항목으로 소득수준, 지리적 접근성, 정보접근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리적 접근성은 대중교통시설 접근성, 노인복지관 접근성으로, 정보접근성은 인터넷 활용정도와 핸드폰 활용정도로 세분화하였다. 통제변수는 노인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성, 동/읍면, 나이, 교육연수, 취업여부, 건강상태로 선정하였다(조경옥, 2005; 이복자·명승환, 2010). 이를 통해 소득수준과 접근성(지리적접근성, 정보접근성)이 네트워크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3년 주기의 법정조사로, 법제화된 2007년 이후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의 2010년 당시, 만 61세 이상인 노인으로 2014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표본추출은 예전 조사와의 비교가능성과 각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하여 층화추출을 실시하였고 층화 2단계 집락추출(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로,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의 표본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는 조사구 내의 가구로, 최종 조사 단위는 975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10,451명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

접조사를 진행하였다.

2014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가구일반사항, 건강상태 및 행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생활환경, 노후생활과 삶의 질, 인지기능, 가구 경제상태 등이다.

본 조사는 국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상 및 네트워크, 접근성에 관한 문항이 들어간 조사이며, 가장 대규모 표본의 노인 조사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들의 네트워크로서 사적네트워크는 자녀와의 왕래빈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친목단체 참여빈도로, 공적네트워크는 경로당 참여빈도, 노인복지관 참여빈도로 조작화하였다. 자녀 및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의 측정은 0(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1(1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3(한 달에 1~2회 정도), 4(일주일에 1회 정도), 5(일주일에 2~3회 정도), 6(거의 매일, 주4회 이상)으로 측정된다.³⁾ 친목단체 참여빈도는 1(월 1회 미만), 2(월 1회), 3(주 1회), 4(주 1회), 5(주 2~3회), 6(주 4회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참여빈도는 일주일에 나가는 일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참여할 경우 1, 참여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경제수준, 정보접근성, 지리접근성으로 구성된다. 첫째, 경제수준은 '본인 배우자의 가구 연간 소득'으로 조작화하였으며, 응답자 노인 가구의 총소득금액(로그)으로 측정된다.

둘째, 정보접근성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 및 핸드폰 접근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인터넷 접근성의 경우 '컴퓨터 활용정도'로 조작화하였으며, 핸드폰 접근성의 경우 '핸드폰 활용정도'로 조작화하였다. 컴퓨터 활용정도는 0(전혀 사용할 줄 모름), 1(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앎), 2(매우 능숙하게 사용)으로 측정되며, 핸드폰 활용정도는 1(전화 받기/걸기만 이용), 2(전화 받기/걸기와 문자 받기는 이용하지만, 문자 보내기는 이용하지 않음), 3(전화문자 받기/보내기는 이용하지만, 정보 검색/뉴스 보기는 이용하지 않음), 4(정보 검색/뉴스 보기까지 모두 이용)으로 측정되었다.

3) 원래 설문문항의 경우 (0)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2) 일주일에 2~3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4) 한 달에 1~2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7) 기타이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종속변수		조작화	측정
네트워크 유형	사적 네트워크	자녀와의 네트워크	자녀와의 왕래빈도
		친구/이웃과의 네트워크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친목단체 네트워크	친목단체 참여빈도
	공적 네트워크	경로당 네트워크	일주일에 경로당 참여일 수
		복지관 네트워크	일주일에 노인복지관 참여일 수
	자원봉사 네트워크	자원봉사 참여여부	
독립변수		조작화	측정
소득수준		본인 배우자의 가구 연간 소득	노인 가구의 총소득금액(로그)
정보접근성	인터넷 접근성	컴퓨터 활용정도	0(전혀 사용할 줄 모름), 1(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 2(매우 능숙하게 사용)
	핸드폰 접근성	핸드폰 활용정도	1(전화 받기/걸기만 이용), 2(전화 받기/걸기와 문자 받기는 이용하지만, 문자 보내기는 이용하지 않음), 3(전화문자 받기/보내기는 이용하지만, 정보 검색/뉴스 보기는 이용하지 않음), 4(정보 검색/뉴스 보기까지 모두 이용)
지리접근성	노인복지관 접근성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	1(걸어서 5분 미만), 2(걸어서 5분~10분 미만), 3(걸어서 10분~30분 미만), 4(걸어서 30분 이상)
	대중교통접근성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거장까지의 거리	
통제변수		조작화	측정
성별		남성, 여성	1(남성), 0(여성)
거주지역		읍/면동	1(동), 0(읍/면)
나이		만 나이	응답 기준 만 나이
교육수준		교육연수	교육연수
취업여부		취업여부	1(취업, 지난 일주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 0(미취업)
건강상태		평소 건강상태	1(매우 건강하다) 2(건강한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건강이 나쁜 편이다) 5(건강이 매우 나쁘다)

셋째, 지리접근성의 경우 노인복지관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조작화하였다.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접근성을 산정할 때 최소입지모형은 공간상의 거리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판단하며, 이용자 총통행인·시간 최소입지모형은 이용자들의 총 접근시간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입지 후보점으로 본다는 점에서(김황배·김시곤, 2006) 접근성을 거리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접근성의 경우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로 조작화하였으며, 1(걸어서 5분 미만), 2(걸어서 5분~10분 미만), 3(걸어서 10분~30분 미만), 4(걸어서 30분 이상)으로 측정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경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거장까지의 거리'로 조작화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접근성과 동일하게 1(걸어서 5분 미만), 2(걸어서 5분~10분 미만), 3(걸어서 10분~30분 미만), 4(걸어서 30분 이상)으로 측정된다.

통계변수는 성, 거주지역, 나이, 교육수준, 취업여부, 건강상태이다. 첫째,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남성의 경우 1, 여성의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읍면으로 조작화하여 동지역은 1, 읍/면지역은 0으로 측정하였다. 나이는 만나이로 측정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로 측정하였다. 취업여부는 현재 지난 일주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1로, 미취업의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평소 건강상태는 1(매우 건강하다), 2(건강한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건강이 나쁜 편이다), 5(건강이 매우 나쁘다)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자녀와의 왕래빈도의 평균은 3.29로 문항 선택지의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⁴⁾ 응답자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약 한 달에 2~3회 정도 자녀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와의 왕래빈도는 평균 약 5.72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단체 참여빈도는 평균 약 2.24로 문항 선택지에 따르면⁵⁾ 월 1~2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

4) 자녀,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의 측정은 0(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1(1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3(한 달에 1~2회 정도), 4(일주일에 1회 정도), 5(일주일에 2~3회 정도), 6(거의 매일, 주4회 이상)

5) 친목단체 참여빈도는 1(월 1회 미만), 2(월 1회), 3(2주 1회), 4(주 1회), 5(주 2~3회), 6(주 4

주일 중 경로당에의 참여일 수는 7일 가운데 평균 4.32일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은 평균 1.23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노인의 경우 자녀와 같은 직접적인 가족보다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가 훨씬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자녀들이 분가하여 사는 가족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깝게 사는 친구나 이웃과의 왕래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친목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중심의 복지관보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경로당에 더 자주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연소득은 평균 7.34(로그)이며, 컴퓨터 사용정도⁶⁾는 평균 약 0.19로 거의 사용할 줄 모르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어 노인들의 IT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핸드폰 사용정도⁷⁾의 평균은 약 1.43으로 전화받기/결기와 문자쓰기 가능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접근성보다는 높지만 역시 핸드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는 3.56으로 약 2-30분 정도 소요되며,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는 1.90으로 도보로 10분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왕래빈도	974	3.29	1.35	0	6
친구왕래빈도	986	5.72	0.72	1	6
친목단체참여빈도	986	2.24	1.02	1	6
경로당참여일수	986	4.32	2.17	0	7
복지관참여일수	986	1.23	0.92	0	7
자원봉사 참여여부	986	0.25	0.43	0	1
연소득(로그)	986	7.34	0.79	5.19	13.82
컴퓨터활용정도	986	0.19	0.53	0	2
핸드폰활용정도	986	1.43	0.77	1	4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	986	3.56	0.79	1	4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986	1.90	0.80	1	4

회 이상)

- 6) 컴퓨터 활용정도는 0(전혀 사용할 줄 모름), 1(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앎), 2(매우 능숙하게 사용)
 7) 핸드폰 활용정도는 1(전화 받기/결기만 이용), 2(전화 받기/결기와 문자 받기는 이용하지만, 문자 보내기는 이용하지 않음), 3(전화문자 받기/보내기는 이용하지만, 정보 검색/뉴스 보기는 이용하지 않음), 4(정보 검색/뉴스 보기까지 모두 이용)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응답자들의 주요 특성은 <표 4>와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이 약 46.15%, 여성이 53.85%로 여성 노인의 응답자가 더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동 거주 노인이 44.93%, 읍/면 거주지역 노인이 55.07%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나이는 73.38세이며 90% 이상이 65세 이상에서 85세 미만에 분포하고 있었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 응답자가 적은 것은 설문에 응답하기 위한 인지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연수의 경우 6년 미만이 66.33%로 가장 많았고, ~9년과 ~12년이 약 14% 내외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대학교육까지 받은 노인은 약 3.55%로 매우 적었으며, 16년 이상 노인의 경우 0.30%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취업노인이 50.30%, 미취업노인이 49.70%으로 취업노인과 미취업노인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가 약 1%, 건강한 편이다가 34.48%, 그저그렇다가 24.24%, 건강이 나쁜 편이 36.41%, 건강이 매우 나쁘다가 약 4%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목	평균	구분	빈도	비율	항목	평균	구분	빈도	비율		
성	0.46	남성	455	46.15%	교육 연수	6.26	~6년	654	66.33%		
		여성	531	53.85%			~9년	162	16.43%		
거주 지역	0.45	동	443	44.93%			~12년	132	13.39%		
		읍면	543	55.07%			~16년	35	3.55%		
나이	73.38	65이상 75미만	606	61.46%			16년 이상	3	0.30%		
		75이상 85미만	356	36.11%			건강 상태	3.08	매우 건강하다	9	0.91%
		85이상	24	2.43%					건강한 편이다	340	34.48%
취업 여부	0.50	취업	496	50.30%					그저 그렇다	239	24.24%
		미취업	490	49.70%	건강이 나쁜 편이다	359			36.41%		
					건강이 매우 나쁘다	39	3.96%				

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⁸⁾ 첫째, 자녀와의 왕래빈도의 경우 소득과 물리적 접근성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을수록 노인복지관과의 거리가 멀수록 버스·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녀와 자주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소득이 많다는 것은 자녀입장에서는 자녀의 부양부담이 적어지게 되므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 역시 경제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방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이 가까울수록 자녀와의 왕래빈도가 낮아지는 것은 노인복지관이 가까울 경우 멀리 사는 비동거 자녀보다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측면에서 자녀와 복지관이 대체재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버스지하철 정거장이 가깝다는 것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것으로 도시나 도심이 아니더라도 교통이 편리할 경우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자녀가 부모를 방문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왕래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의 경우, 노인복지관과의 거리가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가구소득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가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은 주목해볼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친구나 동네 이웃을 만나는 데에는 다른 네트워크에 비하여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거리적 가까움이 작용하게 된다. '이웃'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웃이나 농촌에서의 이웃을 만날 때에는 근처나 지인의 집에서 주로 만나고 특별한 활동을 한다기보다 담소를 나누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다른 네트워크에 비하여 근처의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버스·지하철 정류장과 가까울수록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와의 왕래빈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노인들이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근처의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8) 분석모형에 포함된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부록>에 나타난 것과 같다. 분석모형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하기 위한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가장 높은 연령이 1.51이었으며, 평균 VIF는 1.25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친목단체의 경우 소득과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컴퓨터 활용정도와 핸드폰 활용정도가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단체에 가입하고 활동을 지속할 경우 가입비나 활동비 등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친목단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소득이 많을 경우 취미나 여가활동의 방편으로서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여가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한편, 친목단체의 경우 공통의 관심사나 이익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컴퓨터 활용정도가 높다는 것은 정보화교육을 받을 정도로 소통에 적극적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보다 적극적으로 친구나 이웃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접근성이 높을 경우, 이러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친목단체를 형성할 수도 있고 지속하기 용이함을 의미한다.

넷째, 경로당 참여빈도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에서 대중교통 접근거리가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버스나 지하철 정거장에서 가깝게 살수록(거리가 짧을수록) 일주일 중에 경로당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로당은 한국 노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화접근성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굳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고도 경로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복지관의 참여빈도의 경우 소득이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정보접근성에서는 컴퓨터 활용정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리적 접근성에서는 노인복지관과의 거리와 대중교통 접근성 변수가 유의하게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복지관의 경우 사회부조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부유한 노인일수록 골프나 다른 여가 활동을 보다 선호하고 굳이 복지관의 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 즉, 부유한 노인은 네트워크 선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복지관을 잘 참여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복지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 급식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 있다. 한편, 컴퓨터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노인복지관과 및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복지관 참여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이 높을 경우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 뿐만 아니라 복지관까지의 거리가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복지관의 지리적 분포에 접근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의 경우 정보접근성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리적접근성 중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가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갖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참여자 개인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이나 핸드폰 활용을 통한 높은 정보 접근성은 지역 사회 내의 자원봉사 수요처를 찾아 참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관까지의 거리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복지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복지관 네트워크가 아닌 자녀나 친구와 같은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선택한 사적네트워크와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복지관이나 공공기관, 종교시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관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 접근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접근의 편의성보다는 신념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접근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설 1의 경우 가설 1-1(소득이 높을수록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사적 네트워크의 경우 공적 네트워크보다 연대감이 더 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대감 안에는 상대방의 경제수준을 서로 긴밀히 아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 경우 사적 네트워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친목단체의 경우 여가 및 취미생활을 바탕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네트워크 중에서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에서는 소득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네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 데에는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소득이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네트워크 중 복지관의 경우 부유한 노인일수록 복지관과 같은 공적 시설 외에 다른 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들이 더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적네트워크 보다는 공적네트워크에 의존도가 크며, 그 가운데 복지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현주 외(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의 경우 가설 2-2(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된 반면, 가설 2-1(노인복지관까지의 거

리가 가까울수록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설 2-1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자녀, 친구 등 다른 대체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관과 다른 사적 네트워크가 대체재적 관계에 존재함을 의미하며,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설 2-2가 지지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 및 자원봉사 등의 공적 네트워크 참여에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이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의미한다. 즉, 노인들이 복지관 참여에 있어서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설 2-3(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높을수록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및 가설 2-4(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

〈표 4〉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 회귀분석 결과

	자녀와의 왕래빈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친목단체 참여빈도	경로당 참여빈도	노인복지관 참여빈도	자원봉사 참여여부
가구소득 (로그)	0.091* (2.08)	-0.006* (-2.44)	0.056* (2.36)	-0.048 (-0.53)	-0.091* (-2.53)	-0.079 (-0.72)
컴퓨터 활용정도	-0.109 (-1.10)	0.017 (0.320)	0.167* (2.30)	-0.097 (-0.61)	0.188** (2.97)	0.498** (3.17)
핸드폰 활용정도	0.079 (1.15)	-0.023 (-0.64)	0.099* (1.96)	-0.022 (-0.20)	0.033 (0.75)	0.085* (1.99)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	0.043* (2.11)	0.019* (2.58)	-0.002 (-0.06)	0.087 (0.97)	-0.290*** (-8.18)	-0.146* (-2.43)
대중교통시설까지 의거리	-0.119* (-2.17)	-0.048 (-1.94)	0.038 (0.95)	-0.069 (-0.78)	-0.0919** (-2.63)	-0.077 (-0.76)
성별	0.111 (1.10)	-0.043 (-0.79)	-0.155* (-2.09)	-0.013 (-0.08)	-0.095 (-1.48)	-0.007 (-0.04)
거주지역	0.270** (2.90)	-0.115* (-2.33)	0.289*** (4.24)	-0.364* (-2.44)	-0.181** (-3.05)	0.069 (0.41)
나이	-0.010 (-1.04)	0.002 (0.44)	-0.003 (-0.41)	0.0363* (2.44)	0.012 (1.94)	-0.024 (-1.43)
교육연수	0.005 (0.40)	-0.020** (-3.04)	0.018 (1.93)	-0.037 (-1.85)	0.015 (1.86)	0.089*** (3.91)
취업여부	-0.100 (-1.03)	0.033 (0.63)	-0.165* (-2.33)	-0.105 (-0.68)	-0.185** (-3.00)	-0.303 (-1.73)
건강상태	0.038 (0.82)	-0.064* (-2.58)	-0.023 (-0.66)	-0.117 (-1.56)	-0.020 (-0.66)	-0.169* (-2.01)
cons	3.041*** (3.36)	6.035*** (12.56)	1.780** (2.69)	2.693 (1.86)	2.364*** (4.1)	1.658 (0.99)
관측치	974	986	986	986	986	986

* p<0.05, ** p<0.01, *** p<0.001

근성이 높을수록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모두 지지되어 대중교통접근성은 공적·사적 네트워크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있어서 대중교통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가설 3의 경우 가설 3-1(인터넷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사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가설 3-2(인터넷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핸드폰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공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인터넷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사적 네트워크 중 친목단체 참여빈도, 공적 네트워크 중 노인복지관 및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왕래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의 왕래빈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친목단체를 만날 경우 인터넷 정보활용을 통하여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역시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핸드폰 활용정도의 경우 사적 네트워크 가운데 친목단체 참여빈도와 공적 네트워크 가운데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와 달리 비교적 정보접근성 자체가 낮고 정보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한 정보 활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의 핸드폰 활용의 경우 인터넷 네트워크 활용보다는 주로 통화수단 기능에 집중되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연구결과의 종합

	사적 네트워크			공적 네트워크		
	자녀와의 왕래빈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친목단체 참여빈도	경로당 참여빈도	노인복지관 참여빈도	자원봉사 참여여부
가구소득(로그)	+	-	+		-	
컴퓨터 활용정도			+		+	+
핸드폰 활용정도			+			+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	+	+			-	-
대중교통시설까지의거리	-	-		-	-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이 친목단체 참여빈도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친목단체에 상대적으로 더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 지역에 살 경우 자녀와의 왕래빈도, 친목단체 참여빈도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나 경로당 참여빈도, 노인복지관참여빈도는 읍/면지역 거주 노인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동 지역에 사는 농촌지역보다 많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자녀, 친목단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경우 이웃에 사는 노인이나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경로당관예의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경로당 외에 부재함을 시사한다. 한편, 교육연수 가 길수록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는 적어지지만 자원봉사참여여부는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여부는 친목단체 참여빈도, 노인복지관 참여빈도에는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한 노인일수록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가 많아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접근성이 노인의 유형별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노년기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노인들의 가구소득과 정보접근성(컴퓨터 활용정도, 핸드폰 활용정도), 지리적 접근성(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이 사적네트워크(자녀와의 왕래빈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친목단체 참여빈도) 및 공적네트워크(경로당 참여빈도, 노인복지관 참여빈도,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가구소득은 사적 네트워크 중 자녀와의 왕래빈도 및 친목단체 참여빈도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공적 네트워크에서는 노인복지관 참여여부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컴퓨터 활용정도는 사적네트워크의 경우 친목단체 참여빈도에, 공적 네트워크의 경우 노인복지관 참여빈도 및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핸드폰 활용정도는 사적 네트워크 중 친목단체 참여빈도와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는 사적네트워크 중 자녀와의 왕래빈도,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공적네트워크(노인복지관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여부)에는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네트워크 참여에 복지관까지의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는 사적네트워크의 친목단체 참여빈도 및 공적네트워크의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유형에 관계 없이 노인들의 지리적 접근성이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득에 따라 노인의 참여 네트워크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유한 노인일수록 친목단체 참여를 선호하는 반면, 굳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 네트워크에의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빈곤노인의 경우 친목단체보다는 복지관 등의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빈곤 노인들이 자주 참여하는 공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심리적 지지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 홍보 강화 및 참여 독려를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빈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관과 종교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친목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보접근성에 있어서는 핸드폰 활용정보보다 인터넷 활용정도가 노인들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핸드폰의 경우 활용정도나 기기의 기능을 떠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 정도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 활용을 잘 할수록 사적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공적 네트워크의 참여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화교육 자체가 홍보되지 않고 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컴퓨터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과 관련하여 공적네트워크와 사적네트워크가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노인복지관이 멀수록 자녀와의 왕래빈도, 친구나 이웃과의 왕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각각의 네트워크가 대체재의 관계임을 시

사한다. 즉, 노인들은 공적 네트워크나 사적 네트워크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두 네트워크를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네트워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경제적 이유로든 거동이 불편한 이유로든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하여 이웃주민과의 연계나 셔틀버스 운영 활성화, 지역 복지관 건설 시 노인들의 접근성 고려 등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정거장 등의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가 대부분의 네트워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네트워크 형성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이나 해안지역의 경우 도시만큼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도시지역의 고령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시설 확보 등의 접근성 강화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심리적 지지 및 안정감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소득과 정보·지리적 접근성이 유형별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행정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왔던 접근성과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소득이 각 유형별 네트워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접근성과 네트워크, 소득과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기존 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노인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고유한 네트워크 형성요인을 규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소득별 사회적 관계망 맞춤 정책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서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결측치를 제거하여 관측치가 크게 줄어들어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변수의 조작화에 있어서 사용한 변수들이 실제 개념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월석·김명숙·고재욱. 2013. “스마트폰 정보 활용과 이용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 199-214.

- 강은나·이민홍. 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4(2): 133-160.
- 강주희·윤순덕. 2007.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지역적 편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369-378.
-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6.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1): 82-112.
- 권순정. 2003. “노인의 특성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건축계획.” 《건축》, 47(6): 25-29.
- 기영화. 2013. “지방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자본 효과 탐색.”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7(1):265-295.
- 김경호. 2004.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분포현황 분석.” 《한국노년학》, 24: 19-38.
- _____. 2005. “유료노인복지시설 분포의 형평성 평가: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8(-): 165-185.
- 김교성·반정호. 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 김석준·이특구. 2004.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급량 및 시설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 의료복지시설학회지》, 10(1): 19-28.
- 김용순·최영훈. 2007. “노인정보화와 노인복지간의 관계.” 《한국행정정보》, 41(2): 167-193.
- 김은정. 2007.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세대통합형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195-219.
- 김정언·노용환·최두진·정부연·김재경. 2007. 《고령화와 정보격차: 정보격차의 결정 요인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제선·문용필. 2012. “노인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실증분석-경기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5(-): 223-247.
- 김천석. 2008. “고령층 정보격차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지》, 3(4): 205-214.
- _____. 2013. “세대간 정보격차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지》, 7(2): 213-220.
- 김황배·김시곤. 2006. “접근성이론과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한 행정기관의 입지선정.” 《대한토목학회지》, 26(3): 385-391.

- 김현미. 2008.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 접근성의 시·공간적 구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 358-374.
- 김혜경. 2003. "노인 정보화교육의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수혜자 및 공급자 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20(-): 69-94.
- _____. 2004. 《노인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방안》.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8(-): 1-44.
- 김희년·정미숙. 2004.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노인들의 여가활용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6(-): 263-285.
- 남은영·최유정. 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57-84.
- 마세인·김홍순. 2011. "GIS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 연구." 《국토연구》, 61-75.
- 명승환·이복자. 2010. "고령자의 정보활용 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화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 13(2): 23-47
- 박미진. 2012.. "노인의 우울과 지니네트워크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207-233.
- 박선희·박병현. 2012.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9(2): 85-123.
- 백학영·윤민석. 2007.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세계학술대회》, 219-225.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7.
- 송용석. 2011.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 신용주. 2005. "정보화 교육을 통한 노인 임파워먼트의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11(-): 33-53.
- 신용주·구민정. 2010. "노인 정보화교육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13(4): 119-147.
- 어유경·고정은·김순은. 2016. "노인의 복지서비스 접근 (access) 에 관한 연구: 우울을 경험한 노인의 복지서비스 접근과정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 215-250.

- 오인근. 2009. "저소득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관 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44(-): 111-130.
- 오충원·임동욱·김현진·박준태. 2012. "Space Syntax 를 이용한 한강이남 자전거도로 망의 접근성 분석." 《한국도로학회논문집》, 14(3): 97-110.
- 이도희. 2008. "노인의 접근성 요소분석을 통한 메타포의 조형적 적용에 관한 기초연구." 《기초조형학연구》, 9(4): 153-161.
- 이동영·박중두. 2011. "재가독거노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앤더슨 행동모형 (Anderson Model) 의 적용." 《사회복지정책》, 38(4): 1-23.
- 이복자·명승환. 2010. "노인의 정보화인식과 인터넷활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3(4): 151-179
- _____. 2010. "노인의 인터넷활용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14(3): 269-293.
- _____. 2011. "광역자치단체별 노인의 정보활용 실태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1): 25-51.
- _____. 2010. "노인의 정보활용 실태를 통해 본 지역정보화사업의 쟁점." 《한국정책연구》, 10(3): 239-259.
- 이복자·김용우. 2010. "노인의 인터넷활용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3): 79-105.
- 이성호. 2008. "신빈곤층 사회적 네트워크의 해체와 대응 전략-전주시 노동빈곤층을 중심으로." 《담론 201》, 10(4): 239-273.
- 이유진·김의준. 2015.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1): 65-87.
- 이은석·이선장. 2009. "농촌지역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에 있어서 신체적 여가활동의 완충효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2(2): 35-54.
- 이현주·정순돌·김고은. 2013.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적 자본 경험과 의미." 《노인복지연구》, 60(-): 143-168.
- 이형숙. 2011. "노인들의 도보권 근린시설 이용현황 및 인지된 근접성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2(4): 63-74.
- 임소영·강민아·조성일. 2013.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 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281-308.
- 임경수·소진광. 2005. "지역사회 빈곤퇴치와 사회적 자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1): 35-53.

- 장유미.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3(2): 261-289.
- 장혜란. 2002.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기반 정보서비스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19(4): 185-212.
- 조경욱. 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 복지연구》, 27(-): 203-229.
- 조주은. 2003. "정보 접근성의 사회적 구성: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0(3): 13-32.
- 천의영. 2010. "노인의 사회 연결망 유형과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J Korean Acad Nurs》, 40(1): 88-98.
- 최선미. 2016.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자살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선미·홍준형. 2017.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자살 영향요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따른 정책대안 설계." 《정부학연구》, 23(2): 321-355.
- 홍경준. 2002.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8(1): 105-127.
- 홍준형. 2009.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행정논총》, 47(1): 1-20.
- Bowling, A., & Stafford, M. 2007. "How do objective and subjective assessments of neighbourhood influence social and physical functioning in older age? Findings from a British survey of ageing." *Social science & medicine*. 64(12): 2533-2549.
- Cattell, V. 2001. "Poor people, poor places, and poor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 medicine*. 52(10), 1501-1516.
- Cleaver, F. 2005. "The inequality of social capital and the reproduction of chronic poverty." *World Development*, 33(6), 893-906.
- Collier, P. 2002. "Social capital and poverty: a microeconomic perspective."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An empirical assessment*, 19-41.
-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The Social Service Review*, : 133-149.
- Fiori, K. L., Antonucci, T. C., and Cortina, K. S. 2006. "Social network typologie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1): 25-32.
- Fiori, K. L., Smith, J., and Antonucci, T. C. 2007. "Social network types among older adult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6): 322-330.
- Grootaert, C. 1999. "Social capital, household welfare, and poverty in Indonesia."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148).
- Haws, C. A., Gray, D. D., Yurgelun-Todd, D. A., Moskos, M., Meyer, L. J., and Renshaw, P. F. 2009. "The possible effect of altitude on regional variation in suicide rates." *Medical hypotheses*, 73(4): 587-590.
- Israel, B. A., and Rounds, K. A. 1987.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A synthesis for health educators." *Advances in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31): 1-35.
- Knack, S. 2002. "Social capital, growth and poverty: A survey of cross-country evidence."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An empirical assessment*, 42-82.
- Kennedy, B. P., Kawachi, I., Prothrow-Stith, D., Lochner, K., & Gupta, V. 1998.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firearm violent crime." *Social science & medicine*, 47(1): 7-17.
- Litwin, H., and Shiovitz-Ezra, S.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activity and wellbeing in later life: What really matters?." *Ageing and Society*, 26(2): 225-242.
- Litwin, H., and Shiovitz-Ezra, S. 2006. "Network type and mortality risk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46(6): 735-743.
- Litwin, H., and Shiovitz-Ezra, S. 2011. "Social network typ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mericans." *The Gerontologist*, 51(3): 379-388.
- Macintyre, S., Maciver, S., & Sooman, A. 1993. "Area, class and health: should we be focusing on places or people?." *Journal of social policy*, 22(2), 213-234.
- Mitchell, J. C. 1969. *The concept and use of social networks*. Bobbs-Merrill.
- Moore, L. V., & Diez Roux, A. V. 2006. "Association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with the location and type of food stor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2), 325-331.
- Narayan, D. 2002. *Bonds and bridges: social capital and poverty*. *Social capital and*

- economic development: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Northampton, MA: Edward Elgar, 58-81.
- Narayan-Parker, D., & Pritchett, L. 1997. *Cents and sociability: household income and social capital in rural Tanzania (Vol. 1796)*. World Bank Publications.
- Putnam, R. D., Leonardi, R., & Nanetti, R. Y.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u, R. P., Ellison, N. B., McCammon, R. J., & Langa, K. M. 2015. "Mapping the two levels of digital divide: Internet access and social network site adoption among older adults in the USA."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20.
- Wegener, B. 1991. "Job mobility and social ties: Social resources, prior job, and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71.
- Wenger, G. C., and Tucker, I. 2002. "Using network variation in practice: Identification of support network type."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0(1): 28-35.
- Wherton, J., Sugarhood, P., Procter, R., & Greenhalgh, T. 2015. "Designing technologies for social connection with older people. In D. Prendergast and C. Garattini (eds)." *Aging and the Digital Life Course*, 3, 107-124.
- West, D. M. 2015. *Digital divide: Improving Internet access in the developing world through affordable services and diverse content*.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at Brookings.
- Wellman, B., Haase, A. Q.,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36-455.
- Warren, M. R., Thompson, J. P., & Saegert, S. 2001.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combating poverty. *Social capital and poor communities*, 3.

〈부록〉 상관관계 표

	자녀와의 응답빈도	친구/이웃과의 응답빈도	친목단체 참여빈도	경로당 참여빈도	노인 복지관 참여 빈도	자원 봉사 참여 여부	가구소득 (로그)	컴퓨터 활용정도	핸드폰 활용정도	노인복지관 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시설까지의 거리	성별	거주지역	나이	교육 연수	취업 여부	건강상태
자녀와의 응답빈도	1.000																
친구/이웃과의 응답빈도	0.081*	1.000															
친목단체 참여빈도	0.071*	0.004	1.000														
경로당 참여빈도	-0.060	0.192*	0.016	1.000													
노인복지관 참여빈도	-0.067*	0.049	0.075*	0.059	1.000												
자원봉사 참여여부	0.042	-0.040	0.104*	0.034	0.105*	1.000											
가구소득(로그)	0.064*	-0.025	0.062	-0.045	-0.066*	0.037	1.000										
컴퓨터 활용정도	0.016	-0.045	0.156*	-0.061	0.134*	0.228*	0.134*	1.000									
핸드폰 활용정도	0.060	-0.068	0.148*	-0.057	0.096*	0.173*	0.119*	0.544*	1.000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	0.006	0.022	-0.020	0.030	-0.279*	-0.078*	0.003	-0.040	-0.045	1.000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0.082*	-0.041	0.003	-0.014	-0.120*	-0.051	-0.042	-0.062	-0.116*	0.148*	1.000						
성별	0.032	-0.050	-0.030	-0.018	0.022	0.101*	0.127*	0.234*	0.201*	-0.038	-0.062	1.000					
거주지역	0.107*	-0.085*	0.188*	-0.069*	-0.021	0.049	-0.016	0.074*	0.087*	-0.033	-0.075*	-0.120*	1.000				
나이	-0.019	0.002	-0.005	0.087*	0.080*	-0.042	-0.168*	-0.074*	-0.121*	-0.017	-0.017	0.090*	0.133*	1.000			
교육연수	0.045	-0.122*	0.115*	-0.083*	0.095*	0.222*	0.178*	0.353*	0.323*	-0.058	-0.021	0.434*	0.047	-0.041	1.000		
취업여부	-0.052	0.053	-0.135*	-0.012	-0.135*	-0.070*	0.057	-0.037	-0.006	0.112*	0.035	0.123	-0.330*	-0.294	-0.049	1.000	
건강상태	0.015	-0.060	-0.029	-0.030	-0.039	-0.108*	-0.056	-0.113*	-0.090*	0.042	0.047	-0.190	0.012	0.019	-0.184*	-0.083*	1.00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 Social Network: Focusing on the Income and Accessibility

Seonmi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network types of elderly people by focusing on income, geographical 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web and mobile accessibility) through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network types of elderly people differ according to income. Although the rich elderly prefer to participate in private network like fraternal society, they do not feel the necessity of participate in public networks such as social welfare centers or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s. Second, the degree of Internet use affects the network of elderly people in terms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Third, it implies that public and private networks are in a substitute relation with geographical accessibility. The more the elderly welfare centers are closer, the lower the frequency of their participation in private network groups than in public networks such as welfare centers or volunteer servic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lderly policy and activation of the elderly network by enhancing accessibility.

※ Key Words: The aged society, social network, geographical accessibility, web accessibility, mobile accessibility